

“롤모델은 남진... 트로트는 내 운명”

트로트 가수 김수찬

남진 콘서트 2년간 게스트로 활약 창법 ‘뽕끼’ 많아 떨어내는게 숙제

가수 장윤정이 ‘트로트 예능인’ 시대를 열었던 지 10여 년이 지났다. 흥 넘치는 흥진영을 필두로 여러 후배가 탄생하며 트로트는 젊은층도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이에 힘입어 흥진영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는 트로트 신인을 발굴해냈다. 1994년생 김수찬이 주인공이다. 최근 종로구 수송동에서 만난 김수찬은 직접 화장한 뽕안 얼굴이 어색하지 않으며 웃어 보였다.

김수찬이 처음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쥐기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0년. 담임 선생님 결혼식장에서 남진의 ‘동지’를 멋들어지게 부른 일을 계기로 인천청소년가요제에 나가 대상을 받았다. 그 해 여름 KBS ‘전국노래자랑’에선 최우수상까지 꿰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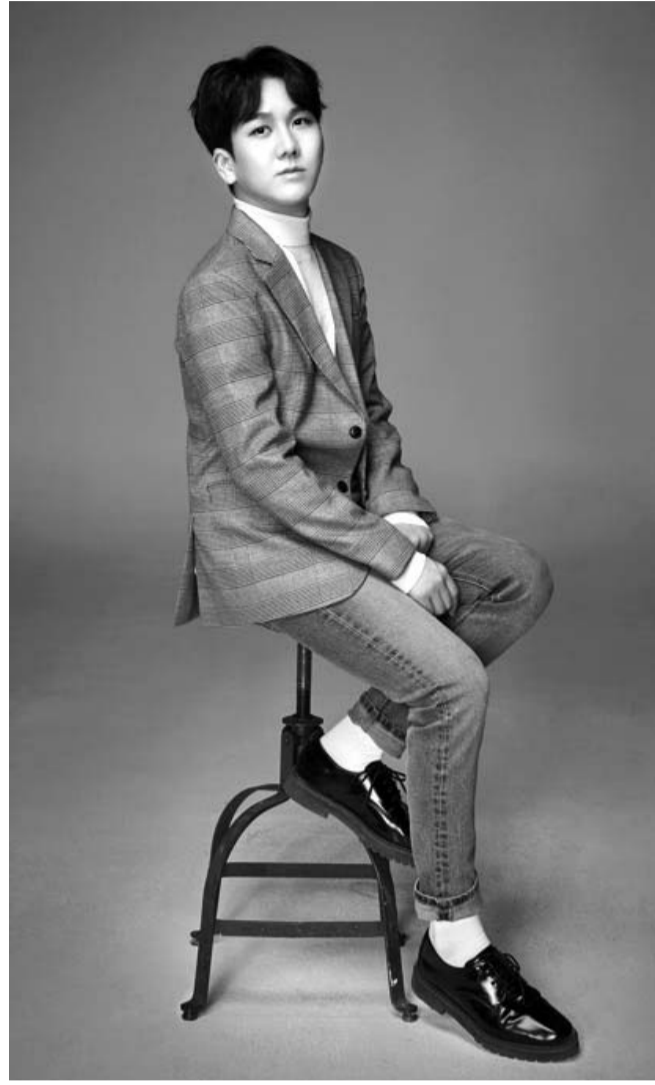
“전국노래자랑”이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렸어요. 엄마랑 하루 전날 기차 타고 내려가서 찜질방에서 자고 참석했죠. 하도 긴장했더니 엄마가 ‘네가 최우수상 받을 거야. 앙코르 무대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라고 다독여주셨어요. 우연히 그 무대를 본 SBS 작가님들이 연락을 주셔서 추석 특집 예능에 나갔는데, 그걸 또 남진 선생님 따님이 보신 거예요. ‘아빠, 노래를 기막히게 따라 하는 아이가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그 인연으로 남진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이후 김수찬은 2년간 남진 콘서트 게스트로 활약했다. 여느 아이돌 연습생들과 달리 실전 무대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것이다. 김수찬은 이때를 “무대를 대하는 자세를 배운 기간”이라며 “무대 위 남진 선생님이 그렇게 색시해 보일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김수찬은 2012년 첫 싱글 ‘오디션’을 냈지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는 2014년 JTBC ‘히든싱어’ 남진 편에 출연하면서부터였다. 전국 행사장을 다니고 KBS ‘가요무대’와 ‘아침마당’에도 종종 나왔다. 그러다 지난해 연말 뮤직K엔터테인먼트에 합류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걸 말리던 남진은 그제야 “네가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펼치라”며 격려했다고 한다.

남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냐고 묻자 김수찬은 “사부님이자 멘토, 롤모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에 제 신곡 제목이 ‘사랑의 해결사’인데요. 아직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직업 특성상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남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전쟁을 겪지도, 일본강점기를 살지도 않았더라도 트로트를 부를 땐 그때 감성을 표현해야 할 순간이 있다고요. 경험하



지 않은 감정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노래란 연기다. 배우들이 경험해봐서 살인자 연기를 하는 게 아니듯이, 가수도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노래로 연기를 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주셨어요.”

트로트의 매력에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뽕끼’를 좋아한다. 저는 창법에 뽕끼가 하도 많아서 떨어내는 게 숙제”라고 웃으며 말했다.

김수찬은 대중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도 행복한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전통 트로트는 물론 다양한 장르도 섭렵할 계획이다.

“무대에 서는 게 정말 행복해요. 트로트를 포기하고 중간에 다른 길로 설 일은 없을 거예요. 남진 선생님, 이미지 선생님처럼 오래오래 앞만 보고 가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김윤아, 서대문형무소서 노래 ... “무명독립운동가 위로”

3·1운동 100주년 전야제 ‘100년의 봄’
KBS 2TV 내일 생중계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가 3·1운동 100주년 전야제 ‘100년의 봄’에 참여한다. 김윤아 소속사 인터파크엔터테인먼트는 김윤아가 최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고잉홈’(Going Home)을 부르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26일 전했다. 김윤아가 어두운 교도소 안에서 노래 ‘고잉홈’을 부르며 무명 독립운동가들을 위로하는 영상은 ‘100년의 봄’에서 공개된다.

오는 28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전야제 ‘100년의 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KBS 2TV에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비-김태희 부부 “9월 둘째 출산해요”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7)·배우 김태희(39)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

김태희 소속사 비에스컴퍼니는 “봄이 다가온 것 같은 포근한 날 김태희 씨에게 찾아온 따뜻한 기쁜 소식이 있다”며 “김태희 씨가 최근 둘째를 임신, 오는 9월 출산 예정으로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결혼한 부부는 같은 해 10월 첫째 딸을 품에 안았다.

소속사는 “또 한 번 축복처럼 찾아온 만남에 김태희 씨는 현재 설레고 감사한 마음으로 안정을 취하며 태교에 임하고 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 생명이 찾아왔음을 함께 축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극한직업’ 미국 관객도 웃겼다



역대 북미 한국어영화 9위

영화 ‘극한직업’(Extreme Job)의 웃음 코드가 북미에서도 통했다.

박스오피스 전문 집계 업체 렌트랙에 따르면 ‘극한직업’은 25일 기준 북미 박스오피스 120만 달러(약 13억4천만원)를 돌파했다.

이는 역대 북미에서 개봉한 한국어로 된 영화 가운데 9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란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

역대 북미 흥행 1위인 한국어 영화는 ‘명량’(259만 달러)이다. 이어 ‘국제시장’(230만 달러), ‘괴물’(220만 달러), ‘부산행’(213만 달러), ‘아가씨’(200만

달러), ‘신과함께-죄와 벌’(191만 달러), ‘암살’(190만 달러), ‘택시운전사’(153만 달러) 등 순이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국 코미디 영화는 문화적,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다른 장르에 비교해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약세를 보여왔다”면서 “극한직업”은 이런 장르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극한직업’은 로스앤젤레스와 부에나파크,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D.C, 밴쿠버, 토론토 등 23개 도시에서 상영 중이다.

아울러 지난 7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봉해 역대 호주 개봉 한국어 영화 순위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MBC 특별생방송 세기의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	40 KBC 모닝 730
8	00 KBS 뉴스특보 <2019 북미 정상회담 평화로 가는 길>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늑봉, 섬을 깨우다 -강화 교동도 72시간>		35 덕덕 365 40 강남스캔들
9	45 KBS 뉴스	00 비켜라 운영(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50 MBC 특별생방송 세기의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	10 좋은아침
10	00 KBS 뉴스특보 <2019 북미 정상회담 평화로 가는 길>	40 지구촌 뉴스		10 특집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SBS 뉴스특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1부
12		55 인간극장 스페셜(재)		
1		10 생활의 발견(재)		00 특집 뉴스브리핑 -제2차 북미정상회담
2		00 아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3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SBS 뉴스특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2~3부
4	00 특집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	00 KBS 뉴스특보 <2019 북미 정상회담 평화로 가는 길>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6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5 특집 MBC 뉴스데스크	
7		50 원손잡이 아내		30 특집 SBS 8 뉴스
8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MBC 특별생방송 세기의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	40 KBC 8 뉴스
9	00 특집 KBS 뉴스9 55 나만의 독림 영웅 <춤 할버트>			00 SBS 뉴스특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4부
10	00 2019 북미정상회담 특집 대담 한반도 대전환, 평화의 길	00 왜그래 풍상씨	00 봄이 오나 봄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내 사랑 치유기(재)	30 특집 나이트리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15 꼬마히어로 슈퍼잭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50 특집 다큐 <러브 마이셀프>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동화(冬話) 3부 수향백미 저우정>
08:00 당동당 유치원1~2	14: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21:30 한국기행 <몽쳐야 산다 3부 우리집은 심심산골>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빠 3부 - 빠는 살아있다>
08:45 랄랄라 뿌우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2:45 극한직업
09:00 엄마 까투리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초대석
09:30 몰랑	16:15 출동! 슈퍼원스	24:45 지식채널e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30 랄랄라 뿌우(재)	24:50 세계의 눈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웃고추조림과 배추겉절이>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7일(음 1월 23일 丙午)

<p>子</p> <p>36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되었으니 주마가면 하라. 48년생 아예 아니함만 백 번 못 하느니라. 60년생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72년생 계획하여 왔던 바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84년생 진행 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83, 28</p>	<p>午</p> <p>42년생 만나거나 접하는 모든 것의 인연이 짧겠다. 54년생 균형 속의 다채로움이 변역을 꾀한다. 66년생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머지않아 적응할 것이다. 78년생 경제 심을 버리고 편하게 대해도 된다. 90년생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행운의 숫자 : 97, 36</p>
<p>丑</p> <p>37년생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 49년생 어렵사리 얻은 것이 결과적으로 거추장스러워지겠다. 61년생 자신이 기대 했던 바 보다 효과가 배가하게 될 것이다. 73년생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85년생 듣고 참고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06, 56</p>	<p>未</p> <p>43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라. 55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나가기 할 절호의 기회이다. 67년생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차질을 빚게 된다. 79년생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할 것이다. 91년생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 행운의 숫자 : 87, 34</p>
<p>寅</p> <p>38년생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찰나에 놓여 있느니라. 50년생 과정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62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일 뿐이다. 74년생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86년생 자신이 행한 만큼에 비례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96</p>	<p>申</p> <p>44년생 예상치 못 했던 곳에서 물고기 트인다. 56년생 계획은 좋지만 실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68년생 쓸모없다면 미련 없이 버려라. 80년생 무리한다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위상이다. 92년생 극한적인 돌발 사태가 보이나 매사에 신중 하라. 행운의 숫자 : 55, 73</p>
<p>卯</p> <p>39년생 부드러움이 고통을 이기는 법이다. 51년생 빠른 속도로 행운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63년생 무의미하다면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75년생 한파가 도사리고 있다. 87년생 지금 당장 손댈 필요까지는 없으니 우선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67, 42</p>	<p>酉</p> <p>45년생 만남과 대화 속에서 깊은 해안을 가질 것이다. 57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길사에 이른다. 69년생 의욕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실행해야 한다. 81년생 신중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93년생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경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6, 18</p>
<p>辰</p> <p>40년생 랜장을 것이다. 52년생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64년생 어떻게 조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76년생 만족 시킬 정도까지는 되지 못하겠다. 88년생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끝맺음만큼은 알찰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67</p>	<p>戌</p> <p>34년생 반복 속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다. 46년생 개성을 살린다면 훨씬 더 가치가 빛나리라. 58년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70년생 신중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82년생 행하면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5, 04</p>
<p>巳</p> <p>41년생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53년생 상충하는 흐름에 내맡긴다면 무리 없이 성취한다. 65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환된다. 77년생 일일이 확인하는 습관이 유익하다. 89년생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강도가 약한 것이 문제다. 행운의 숫자 : 84, 76</p>	<p>亥</p> <p>35년생 무심코 드나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47년생 잔손질이 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59년생 부수적인 것 에 얽매어서 주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71년생 맹 믿이 보완되었을 때 성사 된다는 것을 알자. 83년생 증지를 모은다면 모색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4, 0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